

# ‘e-모빌리티 중심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주력’

###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점검...해외 수출 확대 목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내 최대 연구기관 ‘발돋움’

영광군이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현장을 점검하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장제일 영광군수가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시생산 지원센터,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영광군의 e-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과 현장 소통을 연계해 기업들이 e-모빌리티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지원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제일 영광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함께해 지난 10년간 산업부와 전남도의 지원 아래 국·도·군비로 구축된 전국 최대 규모의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를 둘러보고 영광 전략산업 육성과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첫 방문 장소인 e-모빌리티 연구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중인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미래차 중



장제일 영광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영광군 제공>

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등의 신규사업 협장에서 충돌시험을 관람했다. 시생산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구축된

사출성형과 전착도장 등의 장비를 둘러보고 수주받은 주문을 생산하는 현장을 살펴본 후,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등 3개 동으로 이동했다. 지식산업센터 옆에 위치한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는 자동차 인증·시험·평가와 관련해 가장 인기가 많은 시설로 미래차 핵심기술인 고전력기반기술과 차량무선기술이 적용된 차량 및 부품의 전자기파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전자기 합성, 전자파 인체영향, 무선 통신환경평가, 무선전력전송 평가 및 대책설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 주기적인 전자기파 솔루션 기업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배터리 고안전성 평가센터는 배터리의 안전과 관련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배터리 충방전 효율시험, 연소

시험, 열 충격·낙하 시험 등 배터리와 관련된 15종의 시험이 가능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배터리 고안전성 평가센터-수소연료전지 평가센터의 구축으로 기업 One-stop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의 인원이 70여명으로 늘어 전남도 내 최대 자동차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구축이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과도기에 있는 e-모빌리티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가 겨울철을 맞아 민원실에 온장고를 설치해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제공>

## ‘첨단 기술 기반’ 선박 안전·해양사고 예방 강화

### 해양교통공단 목포지사, 안전 문화 확산·민원 편의 제고 도서지역 원격검사 시스템 도입...학생 진로 설계 지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민원 서비스 개선과 선박 안전·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23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에 따르면 첨단 기술 기반의 MTIS(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와 인공지능 챗봇 ‘해수호봇’을 적극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과 민원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MTIS는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교통 안전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항해 정보와 여객선 교통 정보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해수호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선박 검사 관련 행정 서비스와 여객선 운항 정보를 간편히 제공하며, 대면 민원서비스를 디지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

이고 있다. 목포지사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선박 안전설비 사용법과 위기 상황 대처법을 포함해 학생들이 안전한 해양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양계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 기회를 소개하며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낚시어선 비상탈출구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이 제작한 안전사고 예방 미디어를 QR코드로 연결한 열음굽 홀더를 지역 카페와 편의점에 무상 배포해 안전 메시지와 지역 낚시어선 체험 정보를 동시에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이 밖에 도서지역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원격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 방문 없이 선박 소유자가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사원이 검토해 검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철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민원 서비스 개선도 눈에 띈다. 접근성이 개선된 민원실에서 온·냉장고를 활용해 겨울철 온음료와 여름철 아이스크림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쾌적한 환경과 세심한 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서무전 KOMSA 목포지사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KOMSA 목포지사는 디지털 혁신 기술과 지역 맞춤형 활동을 통해 해양 안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 신안군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건립 본격화

### 폐패널 문제 해결 목적...총 200억여원 투입·2029년 운영 목표

신안군이 폐패널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총 200억여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부터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해 2029년 시설 건립·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재활용연구센터는 폐패널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모듈 등 태양광 관련 부품의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며,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2027년 이후로는 폐태양광 패널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전국 태양광 발전 용량의 23%를 차지하는 전남도의 중심지로서 현재 337개의 태양광 발전소(사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햇빛연금으로 전체 주민 3만8천106명 중 1만6천명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 자원을



회수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기회이자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는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재활용 기술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신인의 정정 껍질을 보호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기자

## 해남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확대

### 기존 50만→80만원...결제금액 5% 인센티브 지급

해남군은 23일 “공공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를 8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2월 한 달간 해남사랑상품권 7% 할인판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80만원

으로 확대하며 한 사람이 지류와 카드를 합쳐 최대 8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일로 종료됐던 해남사랑카드·QR상품권 결제액의 5%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도 재개한다. 7일 이후

카드·QR상품권 결제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책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며 18일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즉시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연말연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속도’

### 부지교환 기재부 승인 완료...공모 활용 마을 조성

강진군의 균형 발전과 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교환이 지난 2년에 걸친 관련부처 협의 끝에 최근 완료됐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답보상태에 있는 경찰서 부지교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강진군 3개 기관 간 실무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한

결과 건립 총사업비 조정과 부지교환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강진군은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완료해 주요 쟁점사항을 해결했다. 올해 교환을 위한 시설 결정 및 지목변경 등 부지조성과 감정평가 완료 후 각 부처 협의의아래 교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통해 부지 교환차액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교환대상에 추가했으며, 해당 추가 부지는 오산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부지 등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총사업비 조정과 부지교환에 대한 기획재정부 승인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서 신청사 건립완료 이전까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해 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상품 소비 먼저”

###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캐시백 상향 등 민생안정 시책 추진

우승희 영암군수가 영암5일시장과 상가를 찾아 상인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정치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연시 지역민의 소비 진작으로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 군수는 영암5일시장 각 매장을 돌며 지역민, 상인, 소상공인 등을 만나 경기 회복을 위해 영암군에서 생산된 상품부터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수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은 내년 설 명절에 예산을 투

입해 영암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캐시백 지급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올해 발행 중단됐던 종이류 영암사랑상품권을 내년 3월부터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상가 홍보비·공공요금·대출이자 지원 ▲주말 영업보상 등 민생안정 시책 신속 추진에 나선다. 우승희 군수는 “경제는 심리다. 영암군민이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면, 그 기운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영암 농민과 소상공인의 상품 소비에서 시작해 경기 회복을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우승희 영암군수가 최근 영암5일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 상품 소비를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함께 힐링해요”

### 오늘부터 이틀간 완도해양치유센터서 윈데이 클래스 운영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23일 “24일부터 25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해양치유센터기

3인은 9만원, 4인은 12만원이다. 20~30대 솔로들을 위한 윈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윈데이 클래스는 완도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스콘, 빵쇼, 향초 만들기 등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참가 비용은 3만6천원이다. 참가 신청은 25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팀(061-550-7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윤보현기자